

大學教育和 캠퍼스 建設



忠南大 總長 徐 明 源

「떡배기보다 장 맛」이라는 俗談이 있거니와 石造殿보다 教授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같은 飲食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맛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教育內容도 물론 重要하지만, 그 教育이 이루어지는 環境 또한 輕視할 수 없는 與件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無關心했던 建設面을 느낀 대로 적어 보겠다.

I. 大學의 位置 選擇

일찌기 Planton 이 Academy 를 세워 弟子를 養成한 곳은 아테네市內가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올리브 숲이 우거진 한적한 시골이었다는 것은 많은 示唆을 준다. 眞理探究의 殿堂은 政治의 中心地나 市井雜가 득실거리는 번잡한 都市가 適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思索에 잠길 수 있는 조용한 環境이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中世紀의 名門大學만 하더라도 大都市에 設立되지 않고, 地圖上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니다.

現代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努力은 持續되고 있는 듯하다. 都市가 가지고 있는 長點을 무시할 수 없어 都市에 자리잡는다 해도, 되도록 都心에서 떨어진 곳을 選擇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京城帝大 豫科를 한적했던 淸涼里에 建設한 것이나, 延禧專門學校를 그다지도 불편했던 延禧洞에 建設한 것도 經濟的 次元보다도 教育的 環境을 考慮한 것으로 생각된다.

左淸龍 右白虎의 명당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해도, 뒤에는 山이 屏風처럼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南向 자리에 校地를 구할 수만 있다면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條件을 다 갖춘 캠퍼스는 매우 드물 것이다. 에너지 문제를 아직도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地理的 條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自然環境이 주는 影響力을 無視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都市에로의 人口集中과 膨脹하는 大學의 敷地問題가 심각해지자, 地方으로의 分散政策이 勸奨되고 있지만, 큰 大學이 設立되면, 5만 人口의 大學都市가 誕生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분간의 苦痛을 甘受하고, 과감한 位置選擇을 斷行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II. 캠퍼스 플래닝

우리 會員大學이 99 個校가 되었으니, 각 會員校마다 캠퍼스 플래닝에 餘念이 없을 것이다. 既存

大學은 既存施設 때문에 苦惱하고, 新設大學은 꿈은 부풀어 있으나 역시 現實問題로 擱日이 있을 수 없다.

新設校의 경우는 白紙를 앞에 놓은 畫家와 마찬가지로, 캠퍼스의 動脈格인 道路를 어떻게 낼 것이며, 建物配置는 어떻게 할 것인가? 各學館間의 距離는 얼마나 멀어져야 教育上 가장 效率의 일까? 또 大學을 대표할 象徵建物은? 運動場의 位置는? 寄宿舍는? 運動場은?

이러한 어려운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여러 教授, 專門家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意見百出에 最終決定者로서의 苦惱는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니, 외로운 建設總(學)長의 신세를 한탄할 때도 있을 것이다.

교육을 百年大計라 함은 교육의 重要性和 教育效果는 長久한 星霜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뜻일 것이다. 建設面으로 보면 一般 大學이 어느 곳에 자리잡게 되면 적어도 數百年을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캠퍼스 플레닝은 먼 未來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道路軸도 중요하지만 그 幅도 「自家用時代」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建物配置는 學群을 考慮함과 아울러, 本部, 圖書館, 學生會館 등의 共同施設을 便利한 位置에 놓아야 할 것이다. 象徵建物은 總(學)長이 執務하는 行政館인 경우가 많다. 大學의 權威를 象徵하는 總(學)長과 그 幕僚가 執務하는 곳이기 때문에 一理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이 學問의 殿堂이라면 圖書館이 그 榮光을 차지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 位置로나, 그 壯嚴性에서나, 施設에 있어서 가장 큰 配慮를 해야 할 것이다.

Ⅲ. 建 物

中世紀 以來의 名門大學을 巡禮해 보면 고딕型의 웅장한 建物에 壓倒되며, 과연 特權精粹分子들을 양성하던 學問의 殿堂이었음을 直感하게 된다. 또 石柱와 彫刻 등의 調和와 美에도 감탄하게 된다. 閉鎖社會의 大學이었기에 大衆을 接近시키지 않기 위해서 大學周邊은 濠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印象的이었다. 建物도 城郭과 같고, 中庭이 발달된 것도 理解할 만하다. 敎學一致의 象徵인 듯 敎會가 뚜렷이 보이느냐 하면, 높은 塔이 大學의 威嚴을 誇示하는 곳도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修學하는 동안에 엘리트로서의 人格이 形成되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現代의 大學建物을 보면 品位가 없다. 大衆教育화된 大學이기에 그 規模는 크지만, 마치 工場이나 아파트團地를 聯想하게 된다. 效率性和 經濟性을 따지는 現代社會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멋이 없는 建物の 連續이 있을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專門知識이나 技術者는 양성될지 모르나 知性和 浩然之氣를 갖춘 指導者는 輩出될 것 같지가 않다. 하기가 教育目的 自體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現代는 實用性을 강조하는 時代이다. 教育課程도 이 傾向이 濃厚해 가고 있다. 당장에 쓸모 있는 教育內容을 원하기 때문에 매우 實質的이고, 打算的이다. 生産性을 요구하는 現實社會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傾向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遠大한 眼目으로 보면, 즉각적인 實用性은 尙望 結果面에서는 非生産的인 경우가 많게 된다. 더구나 急變하는 社會에서는 實用性의 時間的 限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應用科學보다도 基礎科學의 重要性이 여기에 있으며, 學問發達의 相互 連關性을 강조하는 것도 未來社會에 대한 適應能力을 培養하고, 創意性을 育成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落伍者가 될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大學建物は 效率性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소 財政上의 「浪費」가 있다는 손 치더라도 品位 있고, 餘裕있는 「藝術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投資된 果實은 보이지 않는 人格陶冶와 知性으로서 먼 後日에 나타날 것을 確信하기 때문이다. 非生産的인 投資가 실은 보다 큰 次元의 生産性을 內包하고 있을 것이다. 이 假定이 받아들여진다면 稅金으로 運營되는 國立大學보다도 私學에서 실현될 可能性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官僚나 技術者는 國立에서 더 많이 輩

出되지만, 人物은 私學에 期待할 수밖에 없다는 輿論이 있거니와, 비교적 自由로운 私學의 教育方針과 아울러, 보다 融通性 있는 學校環境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多樣性和 調和

使用目的에 따라, 建物이 設計될 것이지만, 外形的 統一을 위하여, 劃一的인 建物이 즐비하게 선 것을 볼 때,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個性 伸張을 力說하는 民主社會의 學園으로서 그다지 찬성할 수 없다. 特色있는 建物들이면서도, 캠퍼스 전체로서 調和를 이루는 藝術作品을 바란다면 지나친 慈心일까. 大學보다 월등히 規模가 큰 都市計劃에 있어서도, 羅城과 같은 特色 없는 拙作이 있는가 하면 巴里와 같은 藝術品도 있다. 우리 서울은 900萬 人口를 자랑하지만, 과연 文化都市라고 할 수 있을까?

존스 호프킨스大學은 그 歷史를 자랑하는 名門大學이기에, 많은 學者들이 巡禮하는 大學이다. 조지아 스타일의 3層建物들이 그 傳統을 誇示하고 있으나, 建物 總坪數가 너무나도 적어 보였다. 그러나 자세한 說明을 듣고 보니, 既存建物과의 調和를 위해서 新築建物들의 地上層數는 3層에 맞추었으나, 膨脹된 必要에 따라, 地下 7~8層으로 設計하였다는 데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建築費와 運營費의 非經濟性보다도 캠퍼스의 調和를 維持하기 위한 부러운 처사였다. 美國 私學의 經濟力을 象徵한다기보다는 그들의 審美眼 또는 哲學의 發露일 것이다.

建築界에 革命을 일으킨 시멘트의 功獻은 至大하지만, 시멘트文化가 우리의 情緒를 메마르게 하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大學캠퍼스도 그 「公害」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에 와서 色彩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高速道路邊의 지붕 색깔은 農民들의 審美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建物들도 色彩上의 調和에 많은 神經을 써야 할 것이다. 너무 輕快해도 안 되고, 너무 鈍重해도 좋지 않을 것이다. 또 自然環境과의 調和까지를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벨지움의 루뱅大學 寄宿舍는 傑作이었다. 괴상망칙한 怪物이라는 것이 첫 印象이었다. 均衡도 調和도 없는 作品이었다. 既存 寄宿舍는 흔히 볼 수 있는 複道를 中心으로 한 對稱的 構造였으나, 增築部分은 複道도 꾸불꾸불하고 房도 같은 것이 없었다. 이 設計는 學生들의 要求에 따른 것이며, 劃一을 忌避하고 個性을 尊重해 달라는 要求를 받아들인 結果라 하며, 호텔 같은 規格生活보다 家庭 같은 雰圍氣가 몇 배나 행복하다는 것이 學生들의 反應이었다. 房 크기도 다르고, 什器도 各色이며, 窓門까지도 統一되지 않았으니, 지나친 形態의 건물이었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哲學이 있었다. 調和를 깨뜨리는 데 妙味가 있다는 것이다.

Ⅴ. 造 景

무슨 餘裕가 있어서 造景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냐는 意見도 있겠으나, 餘裕가 있어서가 아니라 造景이 教育에 미치는 影響을 輕視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大學 教育의 가장 큰 弱點은 知識偏重이며, 情緒教育이나 意志力 涵養에는 많은 盲點이 있는 것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거리의 한 멀기 꽃이 교도소의 人員을 減少시킬 수 있다는 比喩는 學園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근래 불도저의 威力를 利用하여 自然을 순식간에 變質하게 하여 自然征服을 誇示하는 듯하나, 自然과의 調和가 파괴되면 情緒가 메마르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만다. 그보다는 自然環境을 적절히 利用하여, 建物을 마련하는 슬기를 學校가 그 模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外國 캠퍼스의 푸른 잔디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나, 잔디는 美的 理由만이 아니고, 사태를 防

止하며 塵風의 害를 방지하기 때문에 保健上으로도 매우 必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運動場이나 建物附近을 열심히 除草하고 있으나 그 점 하루바삐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 간디는 世界的으로 有名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效率的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있다.

傳統이 오래 된 學園에 가면 거의 例外 없이 巨木이 우거져서 운치가 있다. 校樹가 있으면 더욱 좋고, 稀貴木들을 심어 캠퍼스 全體를 「植末園」으로 만들 수 있다면 教育的으로도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보리수, 마로니에 등은 大學生들에게 浪漫을 주기도 한다. 植木을 하는 데도 흔히 對稱的으로 또는 等距離로 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를 意圖的으로 피하는 것이 次元 높은 東洋式 造景인 듯하다. 剪定도 지나친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 人工美를 가하지 않은 듯한 人工美가 水準 높은 造景法이라 한다.

Ⅵ. 融通性和 未來性

획일적 思考方式을 탈피 못한 우리 學園에서는 같은 크기의 教室이나 實驗室이 많다. 그러나 教育方法의 改善과 學生數의 增加로 同一規模의 空間으로 區劃된 教育場의 弱點을 痛感할 때가 많다. 이 隘路를 克服하려면, 移動可能性 있는 壁으로 融通性 있는 教育場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事務室도 큰 空間을 什器 등으로 必要에 따라 적절히 小空間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름 캐나다의 어느 大學을 訪問하고 더욱 그 實效性을 실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캐비닛으로 區分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S字型的 크고 작은 小事務室들이 의자 등을 교묘하게 利用하고 있었다.

근래는 「多目的」이라는 用語가 많이 쓰이지만 學校建物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한 建物을 食堂, 小講堂, 圖書室, 室內體育館 등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多目的」의 眞味를 알았다. 經費를 많이 들인 施設인지도 모르겠다. 國土가 狹小한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많이 研究해 볼 만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經濟事情이 향상됨에 따라서 學校建築도 外形上은 先進諸國에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制限을 받고 있다. 電氣事情도 많이 좋아졌으나, 節電을 避치 못하고 冷房도 아직은 빠르기 때문에 基本施設만은 未來를 위해서 完全히 해 두고, 經濟的 事情이 好轉됨에 따라 적절히 適應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停車場 문제도 지금부터 考慮해야 할 것이다.

義務教育의 延長과 高學歷社會의 到來를 앞두고, 大學人口의 膨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敷地의 確保 문제는 어느 機關에서나 큰 課題일 것이다. 먼 將來를 위해서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년에 와서 흩어진 캠퍼스를 한 場所로 統合하여 소위 綜合캠퍼스를 建設하고 있으나, 將來에는 오히려 分散의 傾向이 到來할 것이다. 綜合캠퍼스의 長點도 많겠으나, 매머드캠퍼스의 短點도 많기 때문이다. 肥大해진 캠퍼스에서의 官僚化, 非人間化, 疎外感 등을 防止하기 위해서 다시 分散時代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先進諸國의 例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民族의 過去를 알려면 그 博物館을, 現在를 보려면 그 市場을, 그리고 未來를 짐치려면 그 學校를 訪問하라고 했거니와, 大學에서 銅像을 바라보면 建學精神을 말하는 듯하고, 建物을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教育內容을 연상케 한다. 아름답디 巨木은 百年樹人의 眞理를 말하는 듯하고, 象徴塔을 쳐다보면 學徒들의 氣像이 넘쳐흐르는 듯하다. 캠퍼스의 이 길 저 길을 거닐면서 教育의 길은 과연 멀고도 險難하지만, 역시 가장 利潤이 많은 投資임에 틀림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